

아벨: 죽은 자의 설교 피의 대신속죄를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4

요즘 세상이 어지럽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인 믿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1. 하박국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2. 믿음의 정의, 3. 창조 믿음

오늘은 < > 믿음의 실체를 부여잡고 믿음의 증거로 산 첫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창세기 강해 집필, 맥아더, 위어스비 등 참조하면서 준비하였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다

많은 사람의 오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신약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창조 이래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었다. 종교 의식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창 2장 17절).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했다.

아담과 이브는 왜 타락하였는가? 행위의 실수로? 의식의 결여로?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 타락하였다.

뱀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다(창 3장 4절). 그리고 이브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다.

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에게 요구된 것은 믿음이었고 인간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는 불신앙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한 마디로 못 박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한 줄기로 흐르는 원리가 믿음이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였다가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고, 지금도 믿음이고, 영원히 믿음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계보의 첫 자리에 누가 있는가? 아벨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본보기 인물들을 제시할 때, 아벨이 가장 먼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벨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한 옛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원리의 첫 본보기를 보는 것이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짧은 생애를 산 사람 중 하나가 아벨이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것을 말해 준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짧은 숨’ 혹은 수증기를 뜻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전도서에서 적어도 서른여덟 번 ‘헛되다’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외쳤을 때 그가 사용한 바로 그 단어가 ‘아벨’이라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아벨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 수증기같이 짧음을 말해 준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약4:14). 아벨의 생애는 그저 매우, 매우 짧은 숨이었다.

영원한 음성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다. 숨처럼 짧은 생애가 영원한 설교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짧은 생애는 헛된 생애가 아니었다. 그의 음성은 모든 시대에 살아 있다.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증언한다. 11:4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써 그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아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다.

히11장 믿음의 첫 본보기 인물로 아벨이 등장하는 이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11장의 첫 본보기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다.

왜 아담과 이브가 아닌가? 그들은 보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원한 그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타락 이전에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걸었다. 그러나 아벨은 에덴 밖에서 태어났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보지 못하고도 믿은 첫 사람이 바로 아벨이다. 그러므로 그가 11장의 첫 자리에 놓인 것이다.

히11:4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알려 준다.

첫째, 아벨은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둘째,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지금도 친히 증언하신다. 넷째,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네 개를 꿰뚫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 곧 피에 의한 대신속죄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히11:1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미래의 약속들을 현재 존재하는 실체로 여긴다. 그리고 아벨이 바로 그 믿음의 첫 본보기이다.

1.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 자기 죄를 가리는 것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한다. 아벨은 무엇을 바랐는가? 그는 왜 제단에 갔을까?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 죄를 가리는 것 혹은 덮는 것이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산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해도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다 해결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러한가?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1-2절**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는 자가 아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엡2:1).

그뿐 아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로마서 6장 23절). 이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분리이다. 요한계시록은 이를 ‘불 호수’라고 부른다.

죄들이 가려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죄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다.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 힘으로 덮을 수 없다. 아담과 이브는 최초로 그것을 시도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라. 그들이 죄를 지은 뒤에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죄 덮개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다. 그분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다(8절).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선한 행위, 종교 활동으로, 명상, 도덕적 노력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하는 모든 노력은 다 무화과나무로 만든 가리개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분명히 말한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답은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개 혹은 덮개를 마련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 덮개는 오직 죽음으로만 가능하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여기에는 역사상 첫 번째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은 한 짐승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다.

여기에 네 가지 진리가 압축되어 있다. 첫째, 죄인은 죄를 덮는 덮개가 필요하다. 둘째, 사람의 손으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 셋째, 하나님만이 그 덮개를 마련하실 수 있다. 넷째, 그 덮개는 오직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앞치마는 거절하시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만든 가죽 옷을 받아들여셨다. 아벨은 이 네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식들에게 ‘그 가죽 옷에 대해 피와

죽음의 속죄 신학'을 여러 번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벨이 제단 앞에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를 가져왔을 때 그는 단지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앞에 서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2. 미래의 약속을 현재로 끌어옴

당시 아벨이 바라본 것은 자기 어린양 너머에 있었다. 그는 실체를 보고 있었다(히브리서의 해석).

그는 자기 손에 든 어린양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어린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

성경은 아벨의 어린양에서 메시아 어린양에 이르는 긴 길을 보여 준다. 아벨의 어린양은 한 사람을 위한 어린양이었다. 후에 유월절의 어린양은 한 가족을 위한 어린양, 한 민족을 위한 어린양이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양께서 온 세상을 위한 한 어린양이 되셨다.

아벨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 어린양을 미리 붙들고 있었다. 그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1절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은 단지 막연한 소망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거는 확신이다.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다.

1.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어리석은 말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난다.** 들은 적이 없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 계시되지 않은 것에 자기 생명을 걸 수는 없다.

2. 아벨이 들었던 하나님의 표준(창4:3-4)

아벨과 가인은 같은 정보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한 장소를 정해 주셨고, 한 시간을 정해 주셨고, 한 방식을 정해 주셨다.

장소는 어디였겠는가? 본문이 명시하지는 않으나 에덴 동쪽의 그 자리, 곧 그룹들과 불타는 칼이 지키던 그 입구 근처 어디였을 것이다(창3:24). 성막 지성소의 공훈의 자리, 그룹들이 있는 휘장 뒤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간에 대해서는 창4:3이 “시간이 흐른 뒤에”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였다. 그리고 방식은 한 가지였다. 곧 피의 희생이었다.

두 형제 모두 동일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

무지가 문제가 아니었다. 가인도 알고 있었다. 단지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다.

3. 더욱 뛰어난 희생물의 본질 — 피

히11:4는 아벨의 희생물이 가인의 것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이었다고 말한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였을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를 명확히 한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죄 들의 용서, 덮개는 한 가지밖에 없다. 피이다(레17:11).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곡식으로 된 음식 헌물도 받으셨다(레2, 음식헌물, 고운 밀가루, 빵과 과자).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피의 희생 다음에 바치는 것이었다. 결코 피를 대체하지 않았다. 피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곡식 헌물이 감사와 헌신을 표현했다.

이것은 절대적인 표준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죄들을 덮기 위해 친히 마련하신 속죄의 규례이다.

4. 아벨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창4:4).

‘첫 새끼’ → 하나님께 속한 것, 반드시 드려야 할 몫(출13:2, 신15:19)

‘기름’ → 가장 좋은 부분, 하나님께 돌려야 할 부분(레3:16)

아벨 사건은 모세 율법보다 훨씬 전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출12:5, 유월절을 지킬 때 “흠 없는 어린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 약 2,500년 전의 일이다.

아벨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드렸다.

아벨은 자기 죄를 시인하며 어린양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5. 이제 우리는 아벨의 믿음의 핵심에 이르렀다. 그것은 피가 대신 속죄한다는 믿음이다. 대신속죄란 무엇인가?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죽는 것이다. 죄인은 살고, 대속물은 대신 죽는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덮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속물을 마련하셨다. 그 대속물이 죄인 대신 죽고, 그 피가 죄인의 죄들을 덮는다. 이것이 피로 이루어지는 의 대신속죄이다.

아벨은 이 진리를 믿었다. 어린양을 끌고 그 제단으로 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죄로 인해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이 어린양이 저 대신 죽습니다. 이 피로 제 죄들을 덮어 주십시오.”

그는 그 어린양 너머에서 보지 못한 분, 아직 오지 아니한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어린양 안에서 그 어린양 구원자 메시아를 미리 붙들고 있었다.

그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이다(히브리서 11:1의 주석).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다른 모든 길은 다 막혔다. 자기 노력, 선한 행위, 종교로도 죄를 덮을 수 없다.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다. 대속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얻은 ‘좋은 평판’

2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4절은 그것을 아벨에게 적용한다.

성경 본문은 두 형제의 인격에 대해 어떤 비교도 하지 않는다. 가인이 더 못된 자였는지 아벨이 더 좋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벨도 가인만큼 죄인이었다. 그도 똑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인정되었다.

하나님은 아벨의 바친 합당한 어린양과 피의 대속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존중히 여기셨다.

1.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심

4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라고 말한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희생물을 드리며 그분을 존중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영예가 무엇인가? 그분 자신의 의(절대적임 올바름)를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고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벨이 받은 좋은 평판이다.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는’ 아벨

이제 우리는 4절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죽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

1. 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이 말한다.

첫 번째 살인의 진짜 동기가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가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시대 순교의 원형이다. 의로운 자가 의롭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거짓 종교가 참 종교를 죽인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아벨을 첫 순교자로 선언하셨다. **누가복음 11장 50-51절** 의로운 피의 긴 역사는 아벨에게서 시작된다. 그가 그 피의 첫 방울을 흘렸다. 그 후로 흘린 모든 의로운 자의 피, 모든 대언자의 피, 모든 순교자의 피가 그의 피와 한 줄기를 이룬다.
3.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아벨을 인류 역사 최초의 대언자라고 하셨다. 그는 어떻게 대언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대언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아마도 두 가지 방식 첫째, 그의 합당한 희생물 자체가 대언의 메시지였다. 그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를 끌고 제단으로 갈 때, 그것은 침묵의 대언 설교였다 둘째, 그가 입을 열어 따로 말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는 형에게 이렇게 권면했을 것이다. “형, 합당한 희생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인의 마음을 찢었던 것이다.
4. 진리를 말하면 죽음도 올 수 있다
아벨은 자기 형에게 진리를 말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자기 형의 종교적 의를 폭로했다. 그러자 가인은 심히 격노하였고 그 격노가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모든 시대 대언자들의 운명이었다. 대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침례지 요한, 사도 바울, 모든 대언자의 정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왜 그런가? 그들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것이 거짓 종교인들의 마음을 찢었기 때문이다. 진리를 말하는 자, 합당한 희생물을 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박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가인의 후예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들은 여전히 격노한다. 그들은 자기 의가 폭로될 때,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침묵시키려 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진리를 말한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그가 흘린 의로운 피는 영원토록 말한다.**
5.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에 이르렀다. 두 종류의 피가 소리를 낸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벨의 피는 가인에 대한 복수와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다.
그는 평생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었다. 아벨의 의로운 피는 심판을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중 하나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라. “너희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한다.
아벨의 피는 보복을 부르짖는다.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선포한다.
아벨의 피는 심판을 외친다.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을 외친다.
아벨의 피는 가인을 정죄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의롭다 한다.
아벨의 피는 의로운 한 사람을 위해 외친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을 위해 외친다.
아벨의 피는 한 번 외쳤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외친다.
그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다 가인의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벨의 피의 음성을 따라 행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가 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이다. 그 피는 우리에게 보복을 외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화평을 외친다. 그 피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 그 피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의 변호
“내 피로 이 죄인의 죄들을 이미 다 다 덮었습니다.”
아벨의 어린양은 한 사람의 죄를 덮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어린양,

곧 하나님의 어린양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덮으셨다.

6.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설교하고 있다. 무엇을 선포하는가? 세 가지를 선포한다.

첫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행위가 아니다. 어린양을 의지하라.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에 굴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르라.

셋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의인의 끝이 아니다. 영원한 도시가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결론 — 숨처럼 짧은 생애, 영원한 설교

오늘 우리는 현재 죽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설교하는 아벨이라는 대언자의 설교를 들었다.

그는 숨처럼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영원토록 설교한다.

창조 이래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아벨은 그 믿음의 행로의 출발점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그가 외치는 네 가지를 들려준다.

1. 실체 — 그는 어린양을 바치며 아직 보지 못한 구원자 어린양을 미리 붙들었다. 그것이 실체였다.

2. 증거 — 그는 하나님의 계시된 표준, 즉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 그것이 증거였다.

3. 좋은 평판 —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

4. 영원한 음성 — 그는 첫 순교자, 첫 대언자로서 모든 시대에 외치고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벨의 사람은 짧고 헛된 생애였다. 그러나 그 짧은 생애가 영원한 설교가 되었다.

오늘 우리의 제단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자신의 수고인가? 종교 활동인가? 도덕적 노력인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앞치마인가?

이것들은 다 가인의 길이다. 그 길은 사망에 이른다.

우리의 제단 위에는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있어야 한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야 한다. 그것이 아벨의 길 곧 생애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을 말한다.

오늘 그 피의 음성을 듣고 그 어린양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이 덮일 때,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도, 비록 숨처럼 짧을지라도 영원한 설교가 될 것이다.